오륙도 칼럼

이명래
산림치유지도사·중국 한의학 전공

산림치유 자격시험, 1000억원 가치의 보약

황령산 편백나무 숲길

"1000억이 그 사람 시 한 줄보다 못해"

기생 출신 김영한이 생을 마감하기 전 백석 시인의 시 구절을 두고 한 말이다. 두 사람은 20대 3년간 사랑을 나누고 운명적으로 별거를 했다. 그 여인은 평생 모은 1000억원을 법정스님에게 기부한다.

그 돈보다 더한 시 구절의 나무가 '곧고 정한' 갈매나무다. 남녘에는 귀한 그 나무가 대연수목원 초입에 자리잡고 있었다. 매번 보고도 지나칠 뻔한 나무를 선배 산림치유지도사로부터 알게 되었다. 그 후 1년여가 지나 내 수중에도 그 자격증이 쥐어져 있었다.

정년퇴임자로서 국가자격증 준비는 마음 같지가 않았다. 주말마다 부산에서 진주로 달려갔다. 전국 산림치유지도사 9개 양성기관이 부울경에는 경상대학교에만 있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일을 한다. 1박2일로 138시간의 수업시간을 채웠다. 정작 문제는 수료 후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100분에 오지선다형 100문제를 풀어야 하니 머리에 쥐가 날듯 했다.

한날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달력을 보았다. '시험을 접을까' 전날 저녁 온갖 번뇌망상으로 잠들었는데 시험 전 12일이라는 숫자가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다. 12일이 이순신의 12척 배로 바뀌어 다가온 것이다. 교재와 문제집을 다시 챙기며 마음을 다 잡았다. 그런 다짐도 작심삼일이었다. 그전에 수험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쉽게 이야기하던 자신을 떠올리며 내심 가슴이 뜨끔거렸다. 그때에 방송국 출신 친구로부터 카톡이 울렸다. 톡의 내용보다 바탕 얼굴 아래 적힌 한자 구절이 눈에 꽂힌다. '破斧浸舟(파부침주)' 밥지을 솥을 깨부수고 돌아갈 배마저 가라 앉힌 후 전쟁터로 나선다는 것. 그 동안 몇 척의 배가 남았다며 위로했는데, 그 배마저도 송두리째 없앤 자세가 철퇴로 다가왔다.

그전에 고헌산 자락 고향집 화잠 어른은 의사로부터 혈액암 선고를 받았다. 자식들의 입원조치로 치료를 받게 됐다. 불과 며칠이 안되어 감옥살이 같은 지겨움에 농사꾼인 이 어른은 병원을 뛰쳐나와 집으로 왔다. 짚꾸러미를 풀어 축사의 소에게 먹이를 주고 아침저녁 들판의 물꼬를 보러 다녔다. 어쩌다 고향길 골목에서 마주치며 인사를 받는 이 어른은 소문의 암환자라는 기색을 읽을 수 없게 회복이 되었다. 십여년 세월을 더 살다 돌아가셨는데 정작 사인은 일반 노환이었다.

이렇듯 현대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치유의 현장을 종종 본다. 특히 자연을 통해 중병을 이겨내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 119직원과 경찰 등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다. 질세라 숲과 계곡에서 글램핑과 차박이 성황을 이루고 불멍, 숲멍, 물멍, 논멍이 유행이다. 인류가 숲에서 현대도시국가로 나온 지 불과 200여년이다. 숲에 대한 유전자가 피로의 현대사회에 녹색갈증을 더 한 것이다. 우주는 숲을 낳고 숲은 인간을 품었다.

유럽에서는 지연치유를 의료보험과 연계하고, 일본에서는 산림테라피로 임상의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치료를 넘어 자연 치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예방차원의 자연치유는 국가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다. 올 초에는 농업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사의 1회시험이 있었다. 해양자원을 이용한 치유센터도 설립되었다. 10회 시험을 넘긴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치유의 맏형 격이다.

한편 숲을 공부하다 부산의 나무들이 많은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중 천연기념물로 범어사의 등나무군락의 쓰임에 놀랐다.범어사에서는 그 등나무로 종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전을 베끼는 사경 등으로 절에서 종이를 쓰고 남는 것은 구포장에 가져가 사찰의 생활용품으로 바꿔왔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해서 돌로 된 물통이 절 입구에 아직도 누워 있다.

산림치유지도사 준비를 하면서 비대면 교육과 주말 특강으로 주변의 경조사나 모임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공부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사랑과 의리의 갈매나무로 인해 나는 더 깊이 산림치유 속으로 빠져들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에너지가 천억의 보약으로 충당될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1일 유엔기념공원 턴투워드부산 행사를 마치고 빈센트 커트니 씨와 부인 막례 커트니 여사가 동료 참전용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초청 유엔참전용사 부산 체류 하루 더 늘렸으면"

빈센트 커트니의 Freedom is not free

작년 11월 11일 나를 포함한 12개국 동료 참전용사들과 관계자들이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을 때 우리 모두는 부산의 웅장함을 보고 느꼈다. 활기차고 초현대적인 부산은 아시아나 세계 그 어떤 크고 위대한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자연 경관을 갖고 있다.

거대함을 뽐내는 호텔과 마천루의 아파트타워, 온천과 수상스포츠를 위한 멋진 백사장과 풍부한 현대적 의료시설 여기에 세계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의 통로가 되는 항만과 항공노선을 가진 도시가 부산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묵은 시그니엘부산 같은 호화로운 호텔은 안타깝게도 부산시민들로부터 우리를 노출하지 않게 했다. 최고급 호텔에 묵는 특권과 예의는 역설적이게도 전용 투어를 하지 않고서는 부산 사람들이 즐겨 찾는 쇼핑지역이나 생활지역에서 시간을 거의 보낼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 참전용사들은 친절하고 근면하며 헌신적이고 활기찬 부산사람들의 열정을 경험했다. 가는 곳마다 우리를 환영하는 얼굴을 봤다, 부산사람들은 우리들이 오래 전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언 가슴을 녹이는 환대를 보여줬다.

유엔기념공원에서 유엔참전용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을 환영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다. 전사한 전우들이 잠든 땅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는 모습에 가슴 먹먹한 고마움을 느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장엄한 도시를 떠날 때 친절하며 너그럽고 활기찬 부산사람들을 지울 수 없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부산 사람들이 보여준 배려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예술과 기술, 인간 정신의 글로벌 리더의 모습이다.

"따뜻한 환대·세심한 배려 보여준 부산시민·남구주민에 경의를"

유엔참전용사들의 부산 방문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국가보훈처가 턴투워드부산 기념행사의 개선책을 나에게 물어온다면, 부산 체류기간을 기존 1박에서 2박으로 늘릴 것을 권하고 싶다.

부산은 모든 여행자들이 영원히 음미하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메카이다. 나는 부산남구신문 지면을 빌려 우리 참전용사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배려, 전우들이 잠든 묘지를 지키고 개선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산시민과 남구주민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고 싶다. 남구를 유엔평화문화특구로 만들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은 감동적이며, 우리 참전용사들 모두는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캐나다 참전용사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와 지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실 ☎607-4077, 1225honey@korea.kr

대충 쉽고 편한 장사를 할지, 아니면 남과 다른 나만의 장사를 할지 결정을

백승헌의 자영업 성공일기

③ 음식점의 승패는 엄격함

레스토랑을 개업하기 전에 필자는 손님으로 35년 음식점을 다녔다. 그 동안 깜짝 놀란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가게 직원들의 테이블 정리 모습에서였다. 흘어진 음식물이 있는 테이블을 물행주로 음식물과 같이 쓱쓱 닦은 뒤 곧이어 밑반찬을 내어왔다. 안타깝게도 이는 여느 음식점의 풍경이다. 반면 필자가 운영하는 다이닝센에서는 테이블 청소 '4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우선 직원은 냅킨으로 테이블에 떨어진 음식물을 집는다. 이어 그 자리는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아낸 후 무알콜 소독제를 분무기로 뿌린다. 그러고 나서 마른 수건을 닦아야 비로소 테이블 정리가 끝난다.

가게를 찾는 고객들은 깨끗한 바닥을 보고 놀란다. 락스와 세정제, 가루비누를 탄 물로 매일 바닥을 방역하듯 닦아낸 덕택이다. 이렇게 해도 다음날 아침 햇빛이 비추면 부스러기 몇 개가 바닥에 보이는데 매일 아침 이것마저 쓸어 담으면 매장 바닥은 먼지 한톨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광이 난다. 객장의 모든 테이블은 반년 마다 필자의 노하우로 가벼운 연마에 준하는 특수 청소를 거치는데 8년 된 지금도 새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모든 음료잔도 와인잔에 준해 설거지한 후에 바로 린넨으로 닦아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매장 환경과 위생 관리에 주목한 어느 고객의 추천으로 필자는 인근 대학의 외식관련학과에서 특강을 한 적도 있다. 사장이 하기 귀찮은 일은 직원들도 하기 싫은 법이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와 관리는 필자가 직접 하고 있다. 다이닝센은 2021년 6월 식약처의 위생등급업소 매우우수를 통과했는데, 그때 화장실에 붙여 둔 화장실 일일 점검표에 매일 체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특성상 주방은 매일 매일 기름먼지가 쌓이는 곳이다. 따라서 비록 그날 사용하지 않은 접시도 모서리 부분에 기름먼지가 앉게 되는데, 세제와 베이킹 소다를 풀어 씻는다.

위생·청결은 식당의 기본 중 기본 장사에도 '깨진 유리창 이론' 적용 한번 방치하면 자칫 습관으로 굳어

주방이나 홀은 항시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정리정돈이 안된 채로 지나면 그게 익숙해지고 지속적으로 다른 쪽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필립 짐 바르도 교수는 흥미있는 실험을 했다. 낙후된 골목에 상태가 비슷한 자동차 두 대를 세워놓고 한 대는 차창을 조금 깨뜨린 상태로 방치했다. 일주일 뒤 차창이 깨진 자동차는 거의 고철 상태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일단 금이 간 유리창은 전체가 쉽게 망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음식점의 승패를 좌우하는 음식맛, 친절, 매장 환경과 청결·위생에는 그 중심에 모두 사람이 있다.

세계적인 명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에 '버스에 적합한 사람 태우기'가 있다. 적합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직원 채용시 면접을 오래 본다. 이때 중요시 하는 것이 직원의 인성이다. 요리 실력은 늘리면 되지만 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계약적인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약적인 관계이다. 계약적인 관계는 계약에 의해 일하고 월급을 주고받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관계는 신뢰감을 형성하기 어렵다. 하지만 언약적인 관계는 월급 이상의 것을 주고받을 때 생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좋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생의 선배로서 진정으로 직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사장의 이런 진정성을 직원들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언약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직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보는 법이다. 개업 이후 지난 8년간 아내의 잔소리는 늘 계속됐다. 아내는 늘 "시부지기 하지 말라"고 말했다. 허투루하지 말라는 사투리다. 동네에 하나쯤 있어야 할 레스토랑, 그것이 필자가 지향하는 작은 바람이다. 2014년 6월 14일 개업일인 이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날은 또 하나의 그렇고 그런 레스토랑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된 날이다.〈끝〉

용호동 다이닝센 대표

*재능 나눔 일환으로 다이닝센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비창업자 등 외식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백승헌 대표와 연락(621-8833)해 만남과 상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 해소에는 독서가 최고

■독자 투고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읽는다. 최근 신문에서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 책을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즉 독서율은 평균 47.5%였다. 세대별 독서율을 보면 20대가 78.1%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68.8%, 40대는 49.9%, 50대는 35.7%, 60대는 23.8%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책을 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성인의 독서율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72%로 제법 높게 나왔다. 이웃 일본은 최근 1개월간 책을 읽었다고 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47%로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다 고령사회와 고독사회 진입으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심지어 외로워서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독서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싶다. 무협지든 만화든 추리소설이든 시집이든 각자 취향에 맞는 책을 골라 독서삼매경에 빠져 보자. 신문을 정기구독해 매일 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고대 로마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면 위안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책은 많이 읽을수록 이롭다.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특효약이다.

박정도(용호동 주민)

남구·분포도서관 4월 도서관주간 행사

남구·분포도서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58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도서관, 책과 당신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남구도서관은 학부모특강과 어린이 체험, 유아동화인형극 '망치와 '덩치', '블라인드 북' 대출, '줍깅 듬BOOK데이', '세계 책의 날, 세상을 대출하다' 등의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한다.

분포도서관은 학부모특강, 평화를 주제로 하는 어린이체험을 포함해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bsnamgu.go.kr) 참고. 남구도서관 ☎607-6561, 분포도서관 ☎607-3641.

5월 스마트폰 배움학교

구분	과 정 명	교육기간	시 간	대상
기초	스마트폰 기초	5. 16.~7. 4.(월)	10 : 00~12 : 00	신규수강생
중급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공공앱	5. 16.~6. 20.(월)	14 : 00~16 : 00	기초수료자
	다양한 앱 활용	5. 18.~6. 22.(수)	10 : 00~12 : 00	기초수료자
	생활과 스마트폰 접목하기	5. 19.~6. 9.(목)	10 : 00~12 : 00	기초수료자

▷신청 : 4월25~29일 남구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http : //bsnamgu.go.kr/edu/) 또는 전화 접수(선착순 아님)
▷장소 : CCTV통합관제센터 강의실(남구보건소 4층)
▷수강료 : 무료(본인 폰 지참) ▷인원 : 강좌당 10명
▷문의 : 평생교육과 ☎607-4516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유료광고 접수 4072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